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울산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봉천家네 웅기
수상내역	장려상 (울산경제진흥원장상)
작가	홍주현
공모분야	시나리오
주요내용	<p>봉천은 여자는 부정 타기 때문에 가마 근처에도 오면 안 된다며 딸 희주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불통 웅기장이다. '웅기' 밖에 모르고 보수적인 성격 탓에 아내와 아들이 집을 나갔다.</p> <p>딸 희주는 봉천가 웅기의 전수자가 되고 싶지만 아버지가 받아 주지 않아 괴롭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웅기를 만들며 마음을 다 잡기를 13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 나갔던 오빠, 남호가 돌아오면서 전수자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희주는 남호가 집에 돌아온 진짜 이유가 공방 땅문서를 사채업자에게 넘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봉천 앞에 보란 듯이 '현장검거'를 해 오겠다고 결심한다.</p> <p>그런데, 정말 남호는 땅문서를 훔치기 위해 집으로 돌아 온 것일까?</p> <p>'웅기' 때문에 헤어졌던 가족이 '웅기'로 인해 다시 만나고 화해하는 이야기이다.</p>

봉천家네 옹기

#1. 울산 옹기 축제 / 낮

중국 기예 단이 기묘한 묘기를 펼치고 있고, 각 옹기 공방들이 전시해놓은 다양한 옹기들이 봄 햇살에 반짝인다. 한 쪽에서는 마당극 소리가 신명나게 들린다.
울산 옹기 축제 현장. 폐막식의 하이라이트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긴장감 있게 무대 위에서 옹기를 빚고 있는 젊은 옹기장이들.

사회자 자 이제 30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한 시간 1시간 내에 가장 아름답고 새로운 옹기를 만들어 낼 젊은 옹기장
이는 누가 될까요! 모두들 숨 가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십여 명의 참가자들이 자기만의 옹기를 만들고 있다.
그 중 유일한 여자 참가자, 희주(25)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모두 중소형 사이즈의 옹기를 제작 한다.
희주는 다른 옹기장이들과는 다르게 저울에 정확하게 흙의 무게를 재어 자신이 이미 데이
터화한 흙의 양과 무게, 크기와 일치하는 옹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사회자 이번 대회 유일한 여성 참가자는 초반부터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데요. 마치 기계가 만들어내 듯이 수제 옹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희주의 작품을 주목하는 심사위원들, 그리고 관람객들.
희주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옹기를 완성한다.

사회자 김희주 선수 가장 먼저 옹기를 완성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최단 시간에 만든 옹기가 과연 어떤 점수를 받게 될까요?

그 때 희주, 다 만든 옹기를 저울 위에 올리고 무게를 잰다.
놀라는 사회자와 심사위원들.
옹기의 무게를 확인하더니 잠시 무언가를 가늠하듯 생각하는 희주.
이번에는 일정한 크기로 흙 반죽을 잘라 내기 시작한다.

사회자 아직 끝난 게 아닌가요? 김희주 선수 흙을 공 모양으로 돌리기 시작하네요.
 뭘 하려는 것일까요?

이제는 관람객들까지 희주를 관심 있게 쳐다보기 시작한다.
희주가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두꺼비다.
잘라낸 흙들로 똑같은 크기의 두꺼비를 만드는 희주. 그 속도가 빠르고 일정하다.
완성된 두꺼비들을 옹기 위에 붙이는 희주.
일반적인 옹기가 아닌 예술미와 장식미가 더한 두꺼비 옹기가 완성된다.
희주, 마지막으로 옹기 바닥에 ‘熙株(희주)’ 낙관을 찍는다.
드디어 제한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옹기 앞에 서는 참가자들.
전국에서 참가한 선수들의 훌륭한 작품들이 쟁쟁하다.
하지만 옹기에 관상적이며 주술적인 의미까지 더한 희주의 옹기가 역시나 심사위원들과 관
람객들의 눈에 띈다.

사회자 심사위원분들의 점수는 모두 채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관람객 여러분들의 현장투표만이 남아있는데요. 관람객 분들의 득
표수와 심사위원분들의 점수를 합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긴장하는 선수들, 희주도 긴장한 빛이 역력하다.
객석 안,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얼핏 희주를 바라보며 알 듯 말 듯 한 미소를 짓는다.
드디어 발표 순간!

사회자 2010년 울산 옹기축제 최고의 젊은 옹기장이상 수상자는!
 김희주씨입니다!

희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자 김희주씨 무엇보다 다른 참가자들과 다르게 흙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시
 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희주 저는 아버지의 전통도 지키고, 현시대가 원하는 균일함과 대중화도 지향 하
 는 옹기장이가 되고 싶거든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라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사회자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 젊은 선수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그대로 투
 영된 듯합니다. 앞으로 한국 옹기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박수치는 관객들 사이 희주를 바라보는 의문의 모자 남, 슬며시 관람석을 빠져나온다.
트로피와 상장을 받고 기뻐하는 희주.
자신이 만든 두꺼비 옹기를 뿌듯한 얼굴로 바라본다.

#2. 남창역 / 낮

‘ㅅ’ 모양의 지붕 끝머리 2개가 겹쳐 있는 모습이 특이한 남창역 역사.
플랫폼 위,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는 봉천(67).
기차에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회한에 찬 얼굴로 앉아 있는 봉천.
그 때 그의 머리 위로 똑 떨어지는 빗방울.
봉천, 하늘을 바라보면 비가 똑똑똑 떨어지기 시작한다.

#3. 봉천의 웅기 공방 - 장독대 / 저녁

공방 뒤편에 자리한 너른 장독대에 풍경처럼 도열해 있는 장독들.
그 위로 가랑비가 내리고 있다.
장독의 뚜껑을 바람처럼 닫고는 정성스럽게 표면을 닦는 봉천.
마치 귀한 것을 다루는 듯 세심하다. 그 때 우당탕탕 들어오는 소리
봉천 가만히 고개를 돌려보면, 희주가 자신이 1등한 두꺼비 웅기를 들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아버지 봉천을 보고 서 있다.

희주 (트로피 보이며) 아버지! 저....1등 했어요!
봉천 (무심한) 비가 오는데, 장독대 신경도 안 쓰고 뛰하는 거야.
 (인상 쓰며) 그런 흥물스런 거 계속 만들 거면 공방에 오지도 말아라.

희주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공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봉천.

희주 그렇지. 여기서 날 인정하면 올 아버지가 아니지! 그럼.

마치 대화하듯 장독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웃는 희주.
가랑비 내리는 장독대 앞에서 오도카니 자기 웅기를 들고 한 동안 서 있다.

#4. 봉천의 웅기 공방 - 건조실 / 저녁

유약을 발라 말리고 있는 생웅기 들을 살피는 봉천.
생웅기들 사이 유독 커다란 웅기가 눈에 띈다.
2미터는 족히 넘어 보이는 대왕 생웅기를 정성스럽게 살피는 봉천.
그 때 희주가 등 뒤로 커피 잔 하나를 숨기고는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선다.

희주 봉천옹, 지금 커피 한 잔 당기실 시간인데... 한 잔 대령할까요?
봉천
희주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드시고 싶으시네.

짠~ 봉천 앞에 커피 잔을 내놓는 희주.

봉천, 못이기는 척 회주의 커피를 받는다.

커피를 마시며 자신이 만든 옹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봉천.

봉천이 유심히 보는 점, 만지는 부위를 열심히 관찰하며 옆에서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애쓰는 회주. 바지 뒷주머니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더니 아버지가 유심히 보는 옹기의 모양, 질감, 안과 밖 등등을 살피며 적기 시작한다.

모든 옹기를 다 봤는지 커피 잔을 내려놓는 봉천. 그 때 회주, 기다렸다는 듯이

회주 여기 이건 바닥이 너무 올라와서 안 되고, 여기 이건 안에 실금이 보이고
저기 저건 주둥이 부분에 이물질이 살짝 남았죠?
이것들 빼고 소성(가마에 옹기를 굽는 것)준비할까요?

봉천 말없이 회주를 바라보다, 맞다 틀리다 소리도 없이 공방을 나간다.

회주는 혼자 대견한 듯 수첩을 툭툭 치는데 다시 들어온 봉천.

봉천 저 끝에 있는 두 놈도 빼라.

회주 네? (옹기를 살펴봐도 모르겠다) 왜요? 어디가 이상하지?

봉천 (무시) 제사상 일찍 준비하고, 어르신들 옹기도 준비해드리고,
(근엄) 그리고 넌! 가마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고! 알았나?

회주 (시무룩) 네.....그런데 저 두 놈, 왜 안 되는지 말해주심 안돼요?

봉천

끝까지 대답 없는 봉천. 공방을 나가버린다.

수첩을 이리 저리 넘겨보고, 옹기를 만져 보지만 당최 이유를 모르겠는 회주.

휴... 한숨만 나온다. 그러다가 바깥 눈치를 살피며 구석으로 가는 회주.

작은 사이즈의 생옹기 십 여 개가 놓여 있다. 회심의 미소를 짓는 회주.

회주 내 새끼들... 이번엔 너희들 꼭 살려낸다!

#5. 통가마 / 아침

가마에 들어갈 옹기들이 쭉 도열해있고, 그 가운데 봉천의 대왕옹기가 위용스럽게 서 있다.

대왕옹기 위에 손을 대고 가만히 기도하듯 눈을 감는 봉천.

저 멀리, 공방 뒤에 숨어서 가마를 바라보고 있는 회주.

재임(가마에 옹기를 쌓는 것)을 돕고 있는 김 노인과 알 듯 말 듯 한 눈신호를 주고받는다.

기도하던 봉천, 가만히 눈을 뜨는데, 불쑥 얼굴이 굳는다. 성큼성큼 다가가는 봉천.

그러더니 별안간 멀쩡한 생옹기를 깨부수기 시작한다.

격노한 봉천, 고함을 친다.

봉천 당장 나와! 회주, 너! 당장 안 나올 테냐?!

멀찍이 숨어서 바라보던 희주, 망했다는 표정이다.
봉천, 희주가 나오지 않자 더욱 노기 띠어서

봉천 김가! 너냐! 희주 옹기 넣은 것이!

딱 보면 알겠는지, 희주의 옹기만 골라서 깨버리는 봉천. 그런 봉천을 말리는 김 노인.

김 노인 아니, 왜 멀쩡한 옹기를 깨부수고 난리야, 난리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고 남자야! 이놈의 짝 막힌 영감탱이!
젊은 것들 다 떠나는 마당에, 그렇게 하겠다고 애를 쓰는 딸내미를 왜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안달이! 칠푼이가 복에 겨워 노망이 났어!

김 노인이 뭐라고 하든 말든 희주의 옹기를 깨부수는 봉천.
결국 하나 남은 희주의 옹기를 든 봉천. 선전포고하듯이

봉천 너, 정말 안 나올 테냐?

봉천, 마지막 남은 그녀의 옹기를 깨려고 하는데, 그의 손을 막는 희주.
봉천을 사납게 노려보며

희주 왜!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봉천 옹기를 굽는 건 하늘의 뜻이야. 하늘이 허락해 주신대로! 옹기를 얻을 수 있
다 이 말이야! 저 대왕 옹기, 지금 몇 번째 실패한 건지 너도 알지!
너 때문에 부정이라도 타면 그릇이 모두 깨진다 이 말이야!

완고한 얼굴로 눈을 부릅뜬 봉천. 희주, 대왕 옹기를 원망하듯 노려본다.
결국 모든 걸 포기 한 듯 자신의 마지막 생옹기를 들고 나오려는 희주.
썩그랑! 그러나 봉천은 그것마저 깨부수고 만다.

희주 (악에 바쳐) 아버지가 누굴 기다리는지 아는데, 절대 안와요!
또 모르지! 아버지 죽으면 유산이라도 받으려 올지!

그 말에 희주를 바라보는 봉천, 두 눈에 슬픔이 잠시 비쳤다가 사라진다.
가마 밖으로 쫓겨나듯 나가는 희주.
봉천은 마을 옹기장이들과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다.
정성을 다해 가마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봉천.

CUT TO

가마에 피움 불이 올라오고 본격적으로 돌군 불이 들어간다.

땀을 뻘뻘 흘리며 가마에 나무를 넣는 봉천.

#6. 봉천의 옹기 공방 - 장독대 / 낮

커다란 장독들이 쪽 서 있는 뒷마당. 어디선가 훌쩍 거리는 소리가 난다.
장독 사이에 폭 숨어 앉아 훌쩍훌쩍 코를 풀며 눈물을 닦고 있는 희주.

#7. 회상 / 장독대 / 낮

쿵쿵 걸으며 화가 난 듯 걸어오는 봉천.

장독대 앞 어머니가 췌~ 하고 손가락으로 입을 막으며 장독대 안으로 어린 희주(10)를 숨겨준다. 잔뜩 겁먹은 얼굴의 희주에게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을 지으며

엄마 숨바꼭질하는 거야. 아버지 갈 때까지. 잡히면 희주가 술래다~

어린 희주, 약간 마음이 풀렸는지 웃으며 장독대 안으로 숨는다.
화가 잔뜩 난 봉천이 엄마에게 호통을 친다.

봉천 희주, 공방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내 몇 번이나 말해!
당신은 집에서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희주 어디 있어? 내가 오늘 그냥!!

엄마 미안해요. 희주는 제가 잘 타이를 게요.
오늘 소나무 재 들어왔어요. 유약 만들 준비 다 해놨는데....

봉천, 엄마를 꿈 노려보더니 작업실로 가버린다.
봉천을 따라가며 슬쩍 장독대 속 희주를 보더니 가만히 웃어주는 엄마.

#8. 현재 / 공방 - 장독대 / 낮

가만히 웃는 희주.

희주 (푸념하듯) 엄마... 봉천옹 어떡하면 좋지... 정말...

커다란 장독에 기대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더니 별땃 일어난다.
썩썩 눈물을 닦더니 이제 다 위로받았다는 듯 장독대를 떠나는 희주.

#9. 옹기 공방 - 작업장 / 낮

흙 반죽 기계에 삽으로 흙을 퍼 넣는 희주. 온 몸이 진흙투성이다.
무거운 흙을 킁킁 대면서도 반죽 기계에 넣고 뿔아서 치대고 다시 넣는 작업을 반복한다.
흙 작업을 하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편안해 보인다.

희주 봉천 옹은 옹기를 구우시오~ 나는 옹기를 만들 테니~

농담 같은 진담을 하고는 계속 흠과 씨름하는 희주.

#10. 웅기 공방 - 물레 간 / 밤 - 낮

자신의 물레 간에 물끄러미 앉은 희주.

아버지의 물레 간을 돌아보면 저 앞 커튼 사이로, 아버지의 오래된 물건 들 속,
만들다가 만 생웅기 하나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남은 채 서 있다.

희주 나도 아버지만큼 찾고 싶다 구요...

한 숨을 푹 쉬는 희주, 고개를 흔들더니 마음을 다 잡는다.

그리고 자신만의 웅기를 스케치하기 시작하는 희주.

작은 컵부터 김치 냉장고용 웅기까지 실생활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웅기 스케치들.

저울로 흙의 무게를 재고, 초시계로 시간까지 재가며 자신 만의 웅기작업에 몰두한다.

밤과 낮이 반복되고, 얼마나 지났을까 꽤 많이 완성된 희주의 웅기들.

문득 밖을 내다보는 희주. 저 멀리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밤하늘을 가르고 있다.

#11. 통가마 / 새벽

깊은 새벽, 가마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봉천.

얼굴에 재가 가득한 봉천의 얼굴을 살며시 닦아주는 손, 희주다.

잠든 봉천 대신에 가마의 불을 지켜보는 희주.

창불을 확인하고 나서 신중한 얼굴로 가마 안에 나무를 집어넣는다.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봉천을 바라보는 희주.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는 봉천.

#12. 통가마 / 아침

‘꼬끼오~~’ 새벽 닭이 아침을 깨우고 날이 밝아온다.

가마에 불이 잦아들고 창불 구멍으로 가마 안을 살피는 봉천, 긴장의 빛이 역력하다.

드디어 가마 입구를 막아놓은 돌들을 해체하는데 그 옆에 봉천을 돕던 김 노인

김 노인 이제 니도 나도 늙었다. 고만 받아줘.

봉천 시끄럽다.

김 노인 희주도 벌써 13년이다. 젊은 것들 여기 다 버리고 떠날 때 희주만 남았어.

니는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건데?

봉천 나는 선조들께 배운 그대로 하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다.

여자는 하면 안 된다고 선조들이 정하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김 노인 (답답) 이 시대착오적인 영감 탕아! 너 죽으면 웅기도 끝나!

이젠 가마 앞에 불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희주 아녜음 큰불 꺼질 뻔한 거 아냐! 모르냐!

그 말에 멈칫 하는 봉천. 김 노인을 노려본다. 아차, 하는 김 노인.
봉천, 김 노인이 막을 새도 없이 가마 옆에 놓인 빗자루를 들더니 공방으로 달려간다.

#13. 공방 - 마당 / 아침

마침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펴는 희주, 잠이 덜 깬 얼굴인데
그런 희주에게 달려드는 봉천.

봉천 내 여자는 부정 탄다 했지! 오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희주 아버지!

빗자루로 희주를 내려치는 봉천. 희주, 아버지의 빗자루를 피하며 도망치기 시작한다.

희주 평생 공방을 지킨 것도 나고! 아버지 제사 모실 사람도 나야!
 이제 그만 좀 해요!
봉천 뭐야?!

더욱 눈을 부라리며 희주를 쫓는 봉천.
희주, 봉천의 빗자루를 피해 달리다 그만, 쿵! 누군가와 부딪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다.
고통스런 얼굴로 올려다보는 희주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진다.
희주의 눈앞에 축제 관람석의 그 모자남이 서 있다.

희주 오... 빠....?

너무 놀란 나머지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는 희주.
눈앞에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의 오빠 남호(28)가 덩그러니 서 있다.
그때 희주의 얼굴을 가격하려는 빗자루를 툇 막는 남호.
깜짝 놀라 올려다보는 봉천, 정말 남호다.

남호 아버지는 여전하시네요.

픽 웃는 남호를 보더니 순간 얼음이 되는 봉천의 얼굴. 한동안 떨리는 얼굴로 남호를 바라
보다가 빗자루를 들더니 남호를 집 밖으로 몰아내기 시작한다.

남호 아버지!!
봉천 나가!!

눈물을 참 듯 이를 물고 남호를 몰아내는 봉천.
쾅! 대문을 닫아버리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낮은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미는 남호.

남호 (히죽 웃으며) 밥 먹었냐?

희주는 그런 남호에게 다가가려는데, 집 안에서 봉천이 소리를 지른다.

봉천 (E) 희주, 당장 안 들어 오냐?!

희주, 할 수 없다는 듯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

피식 웃는 남호, 말없이 담벼락에 기대선다.

#14. 공방 - 장독대 / 낮 / 비

공방 장독대 위로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

이내 쉼아~ 소리를 내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다.

#15. 공방 - 대문 앞 / 낮 / 비

비를 꼰딱 맞고 서 있는 남호.

그 때 벌컥 대문이 열리더니 우산을 쓰고 나온 봉천이 모르는 척 문을 열고는 어딘가로 가 버린다.

남호 다녀오세요~

피식 웃는 남호, 집 안으로 들어간다.

#16. 봉천 집 안 - 부엌 / 아침 / 비

똑똑 바닥에 떨어지는 물방울.

남호, 젖은 생쥐 마냥 서 있다.

부엌엔 희주가 이미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다.

밥상 위, 작은 웅기그릇들 속에 갇은 반찬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과 국이 먹음직스럽다.

마치 어제 나갔다 돌아온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퍽퍽 밥을 퍼먹는 남호.

남호 니 솜씨냐? 맛있다 야! 다 컸네! 다 컸어.

희주 (어색) 잘..... 지냈어....?

남호 그냥... 살았다. 아버지랑 너는 여전하다. 사이좋아 보이는 게!

희주 (물끄러미) 혼자야...? 엄...마는?

남호 (멈칫) 몰라...

희주 뭐? 왜 몰라? 같이 있던 거 아니야?

남호 야! 씨발 나 살기도 팍팍해 죽다 살아났어!

찢어진지 오래야. 어디서 잘 살겠지!

딱! 손가락을 내려놓는 희주. 남호를 뚫어질 듯 쳐다보더니 밖으로 나가 버린다.
눈빛이 살짝 떨리다가 이내 능글능글 웃으며 밥을 먹는 남호.

남호 13년 만에 집에 왔는데, 또 혼자 처먹네...

행한 집 안에서 우걱우걱 밥을 먹는 남호.

#17. 언덕 / 낮 / 비

언덕 위 서 있는 검은 우산.
우산 안, 봉천이 감회에 젖은 눈으로 남창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저 멀리 기차길로 들어오는 무궁화 열차가 요란하다.

#18. 회상 / 언덕 / 낮 / 비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남창역이 부감으로 내려다보인다.
사람들의 왕래가 복잡한 남창역 플랫폼 위.
엄마의 손을 잡고 기차에 오르려는 어린 남호(15)가 고개를 돌려 언덕을 올려다본다.
우산을 쓰고 남호와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봉천.
그들을 잡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봉천.
남호, 아버지를 원망하듯 바라보며 눈물을 썩 닦더니 기차에 올라 사라진다.

#19. 현재 / 언덕 / 낮 / 비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무궁화 열차를 바라보고 있는 봉천.
회한에 가득 찬 봉천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번진다.

#20. 파출소 / 낮

어느새 비가 그쳤는지 파란 하늘이 반사되는 물웅덩이를 침병 밟고 지나가는 희주의 발.
저 앞, 파출소로 들어간다.

CUT TO

파출소 휴게실에 앉아 있는 희주.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본다. 어쩐지 추레해 보이는 얼굴.
흠 만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더니, 자기도 모르게 마른 손을 닦는다.
그 때 휴게실 문을 열고 경찰복을 입은 희주의 남자 친구 동진(28)이 들어온다.

동진 나,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올게. 조금만 기다려~
희주 (무겁다) 오빠...

동진 (쳐다보지 않고, 정리하며) 오늘은 봉천웅이 또 뭐라 안하시구?
 희주 (혼잣말 같은) 오...빠가 왔어.
 동진 (무슨 소린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니가 빨리 시집 와야지!
 희주 남호...오빠가 돌아 왔다구...
 동진 (놀라) 뭐? 남호가? 정말이야? (기대) 그럼 어머니는?
 희주 (시무룩 고개를 젓는다)
 동진 남호도 모른데?
 희주 응...
 동진 왜 모른데? 같이 있던 거 아니래? 내가 남호를 좀 만나 볼까?
 희주 (피식) 나보다 더 질문이 많네... 맨날 우리 오빠한테 맞거나 했으면서...
 말이나 제대로 하겠어?
 동진 야! 대한민국 경찰을 뭐로 보고! 나 예전에 뽕 뜯기던 이동진 아니다!
 희주 (가만히 웃다가 이내 가라앉는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빠가 돌아왔으니,
 이젠 난 어떻게 되는 걸까? (깊은 한숨) 제일 먼저 이런 생각 밖에 안 드는 거 있지... 숙물 같이...
 동진 (안타깝다) 김 희주! 그런 말 하지 마! 너 할 만큼 한 거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안다!
 희주 엄마도... 오빠도... 매일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막상, 오빠가 돌아오니깐...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은 게...
 전수자가 아직 되지 못한 게 더 마음이 쓰여...
 동진 그럼, 이번이 절호의 기회겠네!

의아한 얼굴로 동진을 바라보는 희주.

#21. 거리 / 저녁

한적한 온양읍 거리를 시원하게 달리는 동진의 오토바이.
 그 뒤에 희주가 동진의 허리를 잡고 앉아 있다.

동진 네 실력이 얼마나 월등한지 한 눈에 증명해 보일 좋은 기회야
 어차피 남호 그 자식, 얼마 못 버티다 또 금세 포기할 게 뻔해.
 그럼 더욱 확실해지지 않겠냐? 누가 봉천 웅의 전수자인지?!
 희주 정말..... 그럴까?
 동진 내말 믿어! 아마 벌써 남호랑 티격태격 하고 계실걸?

희주, 고마운 듯 미소를 짓더니 동진의 허리에 몸을 기댄다.

의기양양해서 활짝 웃는 동진. 저 멀리 웅기마을이 보인다.

#22. 봉천 웅기 공방 앞, 안 / 저녁

공방이 가까워질수록 참담한 얼굴로 변하는 희주.

탁탁탁 수레질 소리가 들려오는 공방 앞에 멈춰 선다.

희주 수레질 소리가.... 이상해.

평소와 다른 수레질 소리에 떨리는 손으로 별걱 공방 문을 여는 희주.

이럴 수가, 아버지가 남호에게 직접 웅기 만드는 법을 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분고분 아버지의 시범을 따라 수레질을 하고 있는 남호.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희주. 목소리가 다 부들부들 떨린다.

희주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봉천 (무심) 밥상 안 치웠다. 밥 먹어라.

희주 (서럽다) 나.. 한 테는 단 한 번도, 일 분 일 초도! 보여준 적 없으면서...
알려준 적 없으면서... (결국 고함) 지금! 뭐하시는 거냐구요!! 웅기에 웅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희주의 고함에 물끄러미 희주를 바라보는 봉천, 남호도 희주를 본다.

봉천 니 오라비다. 말조심해.

오늘부터 웅기 다시 배우겠다니까, 너도 많이 도와줘라.

정말 어이가 없는 희주, 눈물을 보이기 싫어 돌아서는데

아무렇지 않게 들리는 봉천의 목소리

봉천 손에 그렇게 힘을 주면 안 되고.... 도기를 이렇게 잡고 부드럽게...

탁탁탁탁~ 수레질 소리가 들린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희주, 뿡! 문을 닫고 나와 버린다.

#23. 희주 방 앞 / 저녁

자신의 방문을 무섭게 열고 들어가는 희주.

울산 웅기 축제 대회에서 1등한 두꺼비 웅기를 들고 나오더니 바닥에 던지려고 치켜든다.

그러나 차마 던지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는 희주.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공방을 노려본다.

탁탁탁탁~ 들려오는 무심한 수레질 소리.

희주의 눈에서 툭 눈물방울이 떨어진다.

#24. 회상 / 회주 방 앞 / 밤

어린 회주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똑 하고 떨어진다.

엄마 회주야. 이번엔 회주가 오빠한테 양보하자. 응?

 다음 소성 때 그 땐 회주가 먼저 회비 내면 되잖아.

회주 다음 소성이면 아직도 두 달이나 남았잖아~ 앙~ 싫어~싫어~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야. 선생님도.. 선생님도.. 막 혼내...는...데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엉엉 울어버리는 어린 회주.

어린 남호(13)는 물끄러미 보기만 하고 있다.

서러운 어린 회주. 하늘을 바라본다.

#25. 현재 / 회주 방 앞 / 밤

하늘엔 무심하게 별들이 빛나고...

그 하늘을 슬프게 바라보다 속 눈물을 닦는 회주.

#26. 통가마 / 낮

밤하늘이 아침 하늘로 바뀌고 가마 앞.

드디어 가마 안 웅기가 모두 식었다.

마을 노인들이 서로 도와 가마에서 웅기를 꺼내고 있다. 척척 웅기들을 꺼내는 남호.

역시 힘센 남자가 와서 좋다며 늙은 웅기장인들이 봉천의 어깨를 두드린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회주. 한 숨이 절로 나온다.

드디어 봉천의 대왕웅기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사람이 광목천으로 조심조심 대왕웅기를 가마 앞에 꺼내 놓는다.

유심히 살피는 봉천.

사람들이 숨죽이는 가운데, 회주도 멀리서 긴장하며 바라보고 있다.

그 때, 낮빛이 차갑게 변하는 봉천.

망치로 대왕웅기를 쳐버린다. 와르르 무너지는 웅기.

봉천 내 부정 탄다 했지....

회주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회주 쪽을 한 번 노려보다가 사라져버리는 봉천.

회주는 모든 게 서럽기만 하다.

#27. 공방 - 남호의 방 / 낮

DMB를 보며 키득거리는 남호

방문이 벌컥 열리며 회주가 다짜고짜 들어온다.

희주 진심이야? 옹기 만든다는 거?
 남호 (무심하게) 딱히 할 일도 없잖아?
 희주 (화를 참는다) 노력한 거 없이 언제나 쉽게 가지니까 모든 게 다 만만해보이지? 진짜 옹기 만들 거면 제대로 해! 장난 쳤다간 나도 가만있지 않을 거니까!
 남호 (시큰둥) 13년이나 지키고 있었는데도 공방 너 안주는 거 보면 봉천 옹도 참 잔인해.
 희주 (분노) 그래서 나도 변했어... 아버지 밑에서 13년이니까. 오빠는 예나 지금이나 그 눈 속에 옹기가 없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두고 볼 거야.
 남호 (피식) 걱정 마. 나도 오래 있을 생각 없어.
 희주 (의심) 뭐?

능글거리는 남호의 눈 빛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을 감지하는 희주. 그러나 남호는 다시 DMB만 쳐다본다.

#28. 공방 - 희주 방 / 밤

밤새 스케치북에 옹기를 그리는 희주.
 날카로운 눈으로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 대왕옹기를 만들기 위해 최적화된 흙의 양과 두께, 입지름 등을 계산한다.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는 희주의 눈 빛.

#29. 공방 - 작업장 / 아침

좋은 흙을 골라, 나무뿌리 같은 찌꺼기들을 섬세하게 걸러내고
 흙 반죽기에 돌리고 다시 치대고 돌리기를 반복하는 희주.
 묵묵히 흙타래를 만들고 있는 희주를 물끄러미 보다가 사라지는 봉천.

#30. 공방 - 물레 간 / 낮

영 관심 없어 보이는 남호에게 열심히 옹기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봉천.
 봉천, 수레질 시범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남호의 손을 잡는데
 남호의 손 등에 남겨진 깊은 화상자국에 멈칫한다.
 봉천, 안쓰러운 듯 화상자국을 쓰다듬으려 하는데 피하는 남호.
 화제를 전환하려는 듯, 세월의 흔적 가득한 미완성 옹기를 힐끗 보며

남호 저건 아직까지 안 버리고 뭐 하러 놔뒀어요?
 봉천 니가 마지막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젠 또 만들겠지만...
 남호 아버지는 왜 나만 가르칩니까? 희주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봉천 우리 집 장손은 너다.

남호 (순간 울컥하지만 참는다) 희주도 아버지 딸이에요.
 봉천 늦은 만큼 니가 열심히 하면 된다.

답답한 남호.

그 때 벌칙 공방 문이 열리고 희주가 흙타래를 어깨에 메고 킁킁 거리면서 들어온다.
 그런 희주가 반갑지 않는 봉천.

봉천 점심... 차려라. 시장하다.
 희주 (냉정) 봉천 웅 아들한테 차려달라고 해요. 난 이제부터 바쁠 거니까!
 봉천 (노기) 김, 희, 주!
 희주 나! 봉천 웅이 실패한! 그것도 다섯 번이나 실패한 대왕웅기! 만들 거예요.
 봉천!
 희주 내가 성공하면, 그 땐 아버지 전수자로 받아줘요!
 봉천 (노려본다) 넌 안 돼! 할 수가 없어!
 희주 꼭 성공해요. 실패하면 다시는 웅기 안 만들게요!
 봉천 (노려본다)
 희주 (노려본다) 그러니까 나 성공하면 전수자로 받아줘요!
 남호 뭐냐.. 이 분위기! 니가 참, 웅기를 포기하겠다! 지킬 약속을 해라!
 희주 내가 말했지. 나 13년 전 김 희주 아니야!
 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오빠도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서슬 푸르게 봉천과 남호를 바라보는 희주.

#31. 공방 - 물러간 - 집 - 몽타주

- 봉천이 남호를 가르치던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대왕웅기 제작에 몰두하는 희주.
 기벽 한 단에 들어가는 흙의 양만해도 어마어마하다.
 자신이 스케치한 대왕웅기 그대로 흙의 양을 측정해 타래질과 수레질을 반복하는 희주.

옆에선 봉천의 가르침을 받아 남호가 작은 웅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영 진도를 못 나가는 남호. 지루한 표정이다.
 희주의 대왕웅기 만들기에 더 관심이 가는 듯 힐끔힐끔 구경하는 남호의 머리를 톡 치는 봉천.

- 어느 정도 기벽이 올라오자 웅기 안쪽으로 숯그릇을 매다는 희주.
 무른 흙이 무너질까 말려가며 기벽을 세운다.
 오~ 감탄하는 남호.

- 남호와 봉천, 어색하게 마주 앉은 저녁식사.

말 한 마디 없이 밥숟갈 소리만 난다.

- 식사도 하지 않고 웅기에 전념하는 희주. 기력이 많이 올랐다.
세심한 수레질이 이어지는데...
툭, 희주 앞에 놓는 간장, 계란 비빔밥.
의아한 얼굴로 희주 바라보면

남호 마가린 한 숟갈 탁 넣으면 좋은데 촌구석 아니랄까봐 맨 고추장, 된장만...
(나가면서) 먹고 해, 먹고! 싸울 땐 속이 든든해야 되는 법이다.

모르는 척 숙 공방을 나가는 남호.
희주 말없이 남호가 놓고 간 비빔밥을 본다.

- 새벽, 툭툭툭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는 봉천.
밖으로 나와 보면 흙을 고르고 쳐대며 흙타래를 만드는 희주가 보인다.
조용히 공방 안을 보면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대왕웅기가 보인다.
깊은 눈으로 바라보는 봉천.

- 아침, 자신이 만든 웅기 옆에 그대로 잠들어 있는 희주. 그 사이 수척해진 얼굴이다.
형태를 잡아가는 대왕웅기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남호.

희주 (눈 감은 채) 말리는 중이니까... 만지지마.
남호 내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지키는 거냐?
희주 (고개를 돌리며) 아버지 밥 좀 차려줘. 맨날 웅기 만든다고 손목을 하도 써
 대서 터날 중후군 있어. 국 그릇 떨어뜨리면 치우는 게 더 귀찮아.

다시 정신 차리려는 듯 고개를 털고 일어나 웅기의 마른 상태를 확인하는 희주.
남호, 혀를 내 두른다.

- 며칠 동안 공방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대왕웅기 제작에만 매달리는 희주.
옆에서 남호의 웅기가 계속 실패한다. 화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남호의 웅기를 봐주는 봉천. 그러나 계속 무너지는 자신의 웅기를 보며 결국 폭발한 남호가 공방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다.
물끄러미 희주를 보는 봉천. 그러나 희주는 묵묵히 자신의 웅기를 만든다.
그러다 툭 떨어지는 피.
희주 놀라, 코를 쓱 닦으면 코피가 흐른다. 고개를 뒤로 젖히며 코를 막는 희주.
그 때, 하얀 손수건을 희주에게 건네는 봉천.
봉천의 뜻밖의 모습에 희주, 바라보면 봉천 말없이 공방을 나간다.

- 공방 평상에 물끄러미 앉아 있던 봉천, 불쑥 일어나 경운기에 시동을 건다.

#32. 거리 / 낮

터덜터덜 경운기를 몰고 어딘가로 향하는 봉천

#33. 파출소 / 낮

어색하게 나란히 서 있는 봉천과 동진.

동네 까마귀 소리만 깉깉 거린다.

한 참을 말이 없는 봉천. 동진은 어색해 죽을 지경이다.

드디어 입을 여는 봉천

봉천 자네, 한 달에 얼마나 버나?

동진 네?....

영, 시원치 않다는 듯 동진을 위 아래로 훑어보더니 흰 봉투를 슬쩍 건네는 봉천

봉천 회주 데리고 맛난 것 좀 사주고 그러게. 애가 요새 통 먹질 않네.

동진 (당황) ...아...네....

자기 말을 다 했는지, 성큼 걸어 가버리는 봉천.

동진,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34. 공방 / 낮

2/3 정도 완성된 대왕옹기.

자신의 키를 훌쩍 넘긴 옹기 안에 조심스럽게 숯 그릇을 매달아 옹기를 말리고 있는 회주.

이 정도까지 완성한 자신이 대견한 듯 뿌듯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 때, ‘꾸르륵~’ 회주의 뱃속에서 들려오는 배고픈 위장 소리.

남호 (불쑥) 나가자.

회주 (완고) 완성될 때까지 안 나갈 거야.

남호 바람 좀 쐬. 그러다 나 내쫓기 전에 쓰러지겠다! 할 말도 있고..

공방을 터덜터덜 나가는 남호.

할 말? 의미심장한 얼굴이 되는 회주. 얼른 남호를 따라 나간다.

CUT TO

자전거에 앉아 있는 남호.

남호 타!

희주

뒷자리 의자로 고개 짓을 하는 남호. 망설이는 희주.

#35. 마을길 / 낮

마을길을 달리는 남호의 자전거. 뒤에는 희주가 어색하게 앉아 있다.

남호 마을이 너무 변해서, 제대로 가는지 모르겠다.

희주 (통명) 어디 가는데?

어느새 마을길을 벗어나 산길로 들어서는 자전거.

희주 어디 가는 거냐구?!

남호 기억력 하고는...

계속 산 속으로 들어가는 자전거. 희주는 주위를 살피는데 어딘지 모르게 점점 낮이 익다.

#36. 숲 속 - 폐건물 / 낮

버려진 폐건물 앞. 오래 방치 된 듯 풀이 무성하다. 그 앞에 멈춰서는 자전거.

희주, 천천히 자전거에서 내리며

희주 여긴....

남호 이제 기억 나냐?

희주, 버려지고 낡은 건물을 회한 가득한 얼굴로 바라본다.

남호, 건물 안으로 훌쩍 들어가면

홀연히 남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는 희주.

그녀의 시선으로 거미줄이 낀 낡은 물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보인다.

#37. 회상 / 폐건물 안 / 낮

꽁꽁 물레를 움기고 있는 어린 남호. 그 옆에는 어린 희주가 신나는 얼굴로 보고 있다.

희주 오빠! 오빠! 이거 내 물레야? 정말?!

남호 오늘부터 아버지한테 배운 거 그대로 다 알려줄게!

희주 진짜? 진짜야~ (눈물 터졌다) 으~앙~

어린 남호의 목을 끌어 앉는 어린 희주, 물레를 놓던 남호 그대로 희주와 넘어지고 만다.
희주가 너무 꼭 끌어안아 껍뻑 거리는 남호.

CUT TO

물레에 앉아 어린 희주에게 옹기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어린 남호.

남호 내가 너 땀에 옹기 배우지, 아니면 확 때려 쳤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니가 아버지 이겨야 해!

희주 오빠는 옹기 안 하면 뭐 할 건데?

남호 나는 이런 하찮은 장독 따위 안 만들어! 시시하고 재미없다.

희주 (웃으며) 난 좋은데... 옹기.... 오빠랑 나랑 바꾸면 좋겠다.

남호 (짴하다) 너는 옹기가 뭐가 그리 좋냐?

희주 (깊은 눈, 옅은 미소) 이렇게... 흙을 만지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나.

 내가 흙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야...

 그리고 뭐든 담을 수 있잖아. 옹기는! 그래서 좋아!

환하게 웃는 어린 희주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어린 남호.

어린 희주는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물레를 돌린다.

#38. 회상 / 폐건물 안 / 낮

어린 남호가 아이들 몇 명을 세워놓고 기합을 주고 있다.

험한 얼굴로 아이들을 노려보는 어린 남호.

어린 동진이 짹 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남호 니들 행여 담탱이한테 이르면 여기다 물어버린다. 육성희비 잃어버렸다고
 하면 한 번 혼나고 말걸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야.

잃어버린 아이들. 그 때 불쑥 들어오는 어린 희주, 놀라서 바라보며

희주 어머! 오빠... 어? 동진 오빠도 있네?

희주를 발견한 동진, 갑자기 어디서 옹기가 났는지 남호의 어깨에 손을 두르며

동진 야! 김 남호! 여기 되게 멋있다! 종종 놀러 올게! 짜식~

어이없는 남호, ‘이게!’ 하며 동진을 치려하자, 고개를 푹 숙이는 동진.

그러다가 뼈죽 고개를 들더니 희주를 보며 환하게 웃는다.

동진의 모습에 킁 웃어버리는 희주, 물레 앞에 앉는다.

#39. 현실 / 폐건물 안 / 낮

이제는 거미줄이 끼고 사용하지 않는 낡은 물레. 그 앞에 나란히 앉은 남호와 희주.

희주 다 잊고 있었는데... 아직 그대로네...

남호 내 생각도 그대로야.

희주 ...?

남호 전수자는 네가 돼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좀 살살해.

희주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면 뭐해... 정작... 아버지는.. 아버지는...

 날 쳐다보지도 않는데...

남호 대한민국에 웅기장이가 어디 아버지뿐이야?

 여기 아니라도 배우고 만들 데 천지야!

희주 아니! 난 아버지 웅기! 놓지 않을 거야. 봉천가 웅기는 여기 뿐 이니까.

남호 년....

희주 ?

남호 (피식)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랑 똑같아. 봉어빵이야.

 이그... 지긋지긋하다.

피식 웃는 남호를 보며 희주도 픽 웃어버린다.

하늘엔 붉은 노을이 지고 있다.

#40. 공방 - 물레 간 / 저녁

자전거를 나란히 탄 채 공방 안으로 들어온 남호와 희주. 한 걸 편안해 보이는 얼굴들이다.

남호 오늘은 같이 저녁 먹어.

희주 응... 잠깐 웅기 상태만 좀 보고 올게.

희주, 물레 간 안으로 들어서는데 돌처럼 굳어버린다.

희주의 물레 앞에 서 있는 봉천. 그런데 희주가 만든 대왕웅기 기벽이 모두 무너져 내려 앉았다. 놀라서 달려가는 희주. 분명 멀쩡했는데, 훗하게 찌그러진 웅기.

희주, 붉어진 눈으로 봉천을 노려본다.

희주 아버지.... 아버지가 그런 거지...?! 그렇지!!!!

봉천

희주 (발악) 아버지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끝까지 이럴 수가 있어!!

 이런다고 내가 포기할 거 같아?!

 아버지가 부수고 또 부셔도! 나 계속 만들 거야! 그게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길이니깐! 계속 만들 거라구!!

뛰어나가는 희주, 그 때 공방 안으로 들어오던 남호와 마주친다.

눈물을 닦으며 나가버리는 희주.

남호, 이 모든 상황이 어이없고, 화가 난 다는 듯 성큼성큼 봉천에게 다가간다.

남호 그 때, 내가 불 싸질렀을 때 확 다 타버리고 없어졌어야 하는데!
이 지긋지긋한 공방!

봉천 (흔들리지 않는) 희주가 아무리 열심히 한 들, 갠 반쪽짜리야!
가마에 옹기 한 번 구워본 적 없는 옹기장이가 뭐란 말이야!
내가 왔을 때 이미 무너져 있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남호 (싸늘)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쾡! 문을 닫고 나가는 남호.

홀로 덩그러니 남아 무너진 옹기를 바라보는 봉천.

#41. 공방 - 작업실 / 밤

미친 듯이 흙 반죽을 하는 희주. 냇이 나간 눈동자로 손에 피가 나도록 치고 또 치댄다.

남호, 안쓰럽게 바라보다 희주를 돕는다. 희주보다 더 열심히 흙타래를 만드는 남호.

그 때, 불쑥 허리를 펴는 희주. 미친 것처럼 피식피식 웃는다.

희주 크크크..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병신 같이....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더니 멍하니 작업실을 나가는 희주.

남호, 희주를 잡아보려 하지만 희주,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42. 집 - 희주방 / 밤

방 안에 옹기에 관한 물건들을 정신없이 밖으로 던져 버리는 희주.

마당에 나뒹구는 희주의 작은 옹기들, 옹기 스케치들. 옹기 사진들.

그리고 1등한 두꺼비 옹기를 던져버리는 희주.

와장창 깨져버린 두꺼비 옹기를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는 희주.

쾡!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와 버린다.

텅 비고 엉망이 된 방 안,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운 희주.

결국 오염하고 만다.

방 밖으로 희주의 호느낌이 울려 퍼진다.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보는 남호. 가슴이 아프다.

#43. 공방 - 물레 간 / 밤

그 모든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봉천

가만히 눈을 감는다.

그러다가 옹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봉천.

탁탁탁탁 타래질과 수레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온다.

#44. 공방 - 작업실 / 밤

아버지의 웅기 만드는 소리를 듣더니
화가 나는 듯 주먹을 불끈 쥐는 남호.
작업실로 가서 회주가 하다 만 흙반죽을 만들기 시작한다.
탁탁탁탁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흙반죽 치는 소리.

물레간과 작업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새벽까지 멈추지 않는다.

#45. 집 - 회주방 / 아침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스르륵 눈을 뜨는 회주.
아침 햇살이 눈이 부시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회주, 문 앞에 상자를 발견한다.
상자 안, 자신이 던져버린 물건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다.

#46. 공방 - 작업실 / 아침

탁탁탁! 흙을 치대는 소리에 작업실로 다가가는 회주.
남호가 밤새 흙타래를 만들어 놓았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흙반죽 기계를 돌리는 남호를 숨어서 지켜보는 회주.
마음이 몽클해져 오는데...
‘따르릉~따르릉’ 갑자기 울리는 남호의 휴대폰 소리.
남호, 액정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눈치를 살피며 뒷마당으로 향한다.
이상한 기분에 남호를 따라가는 회주.

#47. 공방 - 뒷마당 / 아침

목소리를 죽인 채 누군가와 통화하는 남호.

남호 아직 못 찾았다. 조금만 시간을 더 줘.

뭔가 수상한 기분에 자세히 들으려는 듯 귀를 기울이는 회주.

남호 석태, 너는 공방 땅 시가나 잘 알아보고 있어라. 알았나?
회주 석태? (놀란다) 차... 석태??

석태란 말에 눈빛이 떨리는 회주.
살금살금 빠져나와 봉천의 방으로 달려가는 회주.

#48. 봉천의 방 / 아침

벌췌 문을 여는 회주, 그러나 방 안엔 아무도 없다. 공방으로 달려가는 회주

#49. 공방 - 물레 간 / 아침

헐레벌떡 문을 열고 들어오는 회주.

회주 봉천 웅!

하는데, 웬 사람들이 모두 회주를 쳐다보고 있다.

물레 간에 앉아 대왕웅기를 만들고 있는 봉천.

시 공무원들이 사진도 찍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이다.

회주, 아버지가 대왕웅기를 만드는 것이 맘에 걸리지만 마음이 급하다.

모른 척 대왕웅기를 만드는 봉천.

공무원 벌써 5번 께 실패인데... 이번엔 과연 성공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봉천 실패를 거듭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공무원 모두들 대왕 웅기의 기네스 등재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봉천 웅기는 흙, 물, 바람, 나무, 불... 그리고 선조의 가르침. 이 모두가 다 맞아 떨어져야 탈 없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람의 능력 만으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기네스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선조가 가르쳐 주신 길을 제대로 걸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공무원 그런데... 유독 김봉천 웅께서만 전수자가 없는데....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공무원의 말에 회주, 긴장한 듯 아버지를 바라본다.

봉천 저도 전수자를 찾았습니다.

그 때 마침 공방 안으로 들어오는 남호.

공무원들의 시선이 모두 남호에게로 향한다.

봉천 제 아들 김 남호입니다. 외고 산 봉천 웅기 전수자.

공무원들 고개를 끄덕이며 남호의 사진을 찍으며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기가 찬 회주, 주먹을 불끈 쥐더니 급기야 고함을 치고 만다.

회주 아버지 안 돼! 오빠가 왜 우릴 찾아왔는지 그 목적을 아버지 모르죠!

놀라는 공무원들.

봉천 (근엄) 회주야!
회주 아버지! 지금 전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아무 말도 안하자, 회주, 남호에게 다가가 노려본다.

회주 아버지는 속일 수 있어도 난 못 속여! 음흉하게 착한 얼굴 하면서 나긋나긋
굴 때 알아 봤어야 하는 건데! 빨리 오빠 입으로 말해! 빨리 말하라구!
진짜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이 사기꾼아!

짜!
놀라는 사람들. 회주의 뺨을 정통으로 때린 봉천.
고개가 돌아간 회주, 역시 놀라서 자신의 얼굴을 만진다.

봉천 오라비한테 무슨 건방진 소리야! 봉천 웅기 전수자는 니 오라비야!
넌 이미 실패했어!
회주 (원망의 눈으로 운다) 아버지....
봉천 이럴 거면 당장 나가!
회주 (꼭 참으며) 공방..... 후회하기 전에... 잘 지켜세요....

공방을 뛰어나가는 회주. 남호의 얼굴도 굳는다.
회주가 나간 곳을 보고 한 없이 서 있는 봉천의 뒷모습.

#50. 거리 / 낮

회주의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허공을 가른다.
숨이 차오를 듯 뛰어나가는 회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앞이 뿌옇다.
얼마나 뛰었을까, 갑자기 불쑥 멈추는 회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울음을 그치더니, 이내 얼굴빛이 차분해 진다.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거는 회주.

회주 여보세요? 동진 오빠. 지금 당장 만나.

#51. 시내 사채업 사무실 / 낮

화가 난 얼굴로 들어오는 회주, 그 옆에 동진을 대동하고 섰다.
낄낄 거리며 전화 통화를 하다가 회주와 동진을 보고 숙 일어서는 석태.

석태 아이고~ 이게 누구야. 동진이 형남 아이가, 몇 년 만이가?

동진에게 악수를 청하는 석태. 그런 석태의 손을 탁! 쳐버리는 희주.

희주 야! 차석태, 너 남호 오빠랑 무슨 작당이야?
 석태 (무시) 형님도 남호 형님 봤나? 오랜만에 다들 모였데, 술이나 한잔 할까?
 동진 차 사장님. 영업은 합법적으로 하시는 거 아시죠?
 석태 하! 이 형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희주 너, 우리 아버지 공방 털 끝 하나 건드리기만 해봐! 그 땐 정말 가만 안 뒀!

능글능글 웃던 석태, 희주의 고함소리에 결국 열이 받았다. 얼굴이 차갑게 변하는 석태

석태 썩 썩 웃으면 내가 참 선해 보여~ 그게 문제야... 내 인상이 너무 착해.

성큼성큼 희주 앞에 다가서는 석태, 희주 자기도 모르게 움찔한다.

동진, 희주를 자기 뒤로 끌어 숨기고 석태 앞에 선다.

얼씨구~ 피식 웃어버리는 석태.

석태 하나 밖에 없는 동생 년이, 지 오빠 사정도 통 모르나?
 남호 형님, 서울 가서 억수로 고생했나 보다. 막노동에 배달에 안 해본 일
 이 없다드만. 그 돈 다 모아서 식당을 차렸다나 뭐라나 근데 탈탈 말아
 먹고 할 수 없이 고향 내려왔나 본데... 나한테 돈을 빌려 달라 길래 나도
 안 빌려 줄라 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는 사람이랑 얼굴 붉히는 거
 거든. 근데, 희주야 너 그거 아나?

희주 (노려본다)

석태 남호 형, 자기 신장까지 팔았나보더라. 나한테 수술자국 보여주면서 돈
 빌려 달라는데 그럼 어찌나? 뭐... 우선, 천만 원 줬다. 니 아버지 공방 담보
 로, 근데 땅문서를 안 가져 온다. 어찌면 좋을까?

희주 이.... 인간....도대체...

주먹을 불끈 쥔 희주, 사무실을 박차고 나간다.

동진 희주야!

석태 형님~ 결혼은 언제고? 청첩장은 꼭 보내세요.

능글능글 웃으며 커다란 사무실 의자에 앉는 석태

동진, 노려보다가 희주를 따라 나간다.

#52. 거리 / 낮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성큼성큼 걸어가는 희주를 따라오는 동진.

동진 아버지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희주 나.. 이제! 공방 안 들어가!

동진 (놀라는) 뭐?

희주 어차피 내 말은 믿어 주지도 않을 거야. 울 아버지.

그럼 방법은 하나잖아.

동진 ...?

희주 현장 검거.

동진 현장.... 뭐?

희주 땅문서 들고 도망가는 걸 잡아서 아버지 보여주면 그게 현장 검거 아니야?

각오가 단단한 듯 씩씩거리며 가는 희주.

동진, 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난감한 얼굴로 머리를 긁는다.

동진 니가... 경찰인지.. 내가 경찰인지...

#53. 용기마을 앞 외진 곳 / 밤

컴컴한 곳에 자동차를 대고 마을 입구를 주시하고 있는 희주.

동진은 자기도 모르게 하품하다가 희주의 번뜩이는 눈빛에 주눅이 든다.

동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희주 남호 오빠 잡을 때까지. 피곤하면 먼저 들어가도 돼...

동진 아니다.. 너 혼자 두고....(괜히 기침) 그리고 잠복은 원래 경찰 특기다.

근데.. 남호가 원래 그런 놈 아니잖아.

희주 12살 때 오빠 보고 13년만인데... 사람이 어찌 변했는지는 모르는 거야.

동진 어렸을 때 남호가 너한테만은 진짜 잘 했는데...

희주 그 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랬지...

#54. 회상 / 봉천 공방 - 집 / 밤

새벽, 눈이 펄펄 내리는 봉천의 공방 앞.

집 안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배를 움켜쥐고 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엄마.

옆에서 어린 희주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어린 남호는 수화기를 든 채 눈물을 꺾 참고 있다.

남호 엄마가 배가 너무 아프시네요. 막 추우시다 그러고 토도 했어요.

어느 쪽이요? 네 물어볼게요. 엄마! 엄마! 어느 쪽 배가 아파? 응?

엄마 (대답도 잘 못한다) 오...큰....아~악.
 남호 오른쪽이래요. 네... 맹장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어른이요? 계신 긴 하는데... 네... 네..

전화를 끊는 남호.
 눈물범벅이 된 희주가 오빠를 잡으며 흐느낀다.

희주 119에서 뭐래? 언제 온데?
 남호 지금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금방은 못 온단다.
 희주 뭐? 엉~엉~ 그럼 어떡해.. 엄마 죽으면 어떡해...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남호.

#55. 회상 / 통가마 / 밤

한 겨울인데도 가마 앞 불길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가마 불을 살피고 있는 봉천.
 모든 정신을 집중한 얼굴이다.

남호 (다급하게) 엄마, 지금 당장 병원가야해요!
 봉천 (가마 불만 보고 있다)
 남호 아빠! 엄마, 맹장 터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봉천 구급차 불러라.
 남호 밖에 눈 오는 거 안보여요?!

그제 서야 밖으로 고개를 돌리는 봉천. 눈발이 굵다.

봉천 가마 불 꺼지면 저 안 웅기들 끝이다.
 남호 그럼, 엄마는요?! 엄마 정말 아프단 말이 예요!
 봉천 맹장이 아닐 수도 있어...
 남호 (서슬 푸르게)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저주하듯 봉천을 노려보더니 어딘가로 뛰어나가는 남호.
 봉천, 주저하듯 나무를 든 손을 멍하니 보다가 결심한 듯 가마 안에 집어넣는다.
 가마 앞에서 떠나지 않는 봉천.

#56. 회상 / 거리 / 새벽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남호가 지나가는 차를 찾고 있다.
 왕래가 없는 도로. 맹렬한 추위에 온 몸이 얼어버린 남호.
 그러나 도로를 달리고 또 달리며 자동차가 오나 살핀다.

그 때, 저 앞에서 기적처럼 작은 용달이 한 대 달려오고 있다. 환해지는 남호의 얼굴. 필사적으로 용달을 막아서는 남호. 경적 소리 내며 멈추는 용달.

기사 너! 미쳤나!

남호 (절실) 아저씨! 아저씨!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오열하며 애원하는 남호의 얼굴.

#57. 현재 / 차 안 / 새벽

옛 기억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희주.

희주 그 때 오빠 아니었음 엄마 죽었어.

 병원 가자마자 수술해서 살았지...

 그 일 있고 얼마 안 있다 엄마랑, 오빠 다 여길 떠났어.

동진 (망설이다) 너는.... 왜 안 간 거야?

희주 내가 안 간다고 했어.

의아하게 바라보는 동진.

회한에 찬 눈으로 밖을 응시하는 희주.

#58. 희주 방 / 밤

빠걱... 희주의 방문을 여는 손. 남호다.

처음으로 희주의 방에 들어와 보는 남호.

상자 안에 들어 있는 희주가 던져 버린 물건들을 바라보는 남호.

굽지 못한 작은 웅기들, 웅기 사진, 웅기 스케치들.

그리고 아버지가 웅기를 만들고 있는 지역 신문 사진까지...

그녀의 인생엔 정말 웅기 밖에 없는 것 같다.

방안을 둘러보다 책꽂이 속 작은 앨범을 꺼내 보는 남호.

앨범 역시 모두 웅기뿐이다. 페이지를 넘기다 맨 마지막 장에서 멈추는 남호의 눈 빛.

빛 바란 사진 속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남호와 희주가 나란히 서 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남호.

#59. 회상 / 공방 앞 / 밤

통가마쪽에서는 봉천이 여전히 가마 불에 집중하고 있다.

카메라 공방 쪽으로 이동하면 물레 간, 문을 열고 귀신같은 눈을 하고 나오는 어린 남호.

천천히, 희주 방으로 다가간다.

#60. 회상 / 희주 방 / 밤

자고 있는 어린 희주를 흔들어 깨우는 어린 남호.

희주 (부스스) 오빠...? 엄마는 괜찮아?
남호 응. 우리 엄마한테 가자.
희주 지금?
남호 응, 지금! 빨리 나가자.
희주 (의아한 듯) 근데, 책가방은 왜 갖고 가?

남호, 등에는 자기 책가방을 메고 손에는 희주 책가방을 들고 있다.

남호 나중에 얘기 해 줄게. 우선 빨리 나와!
희주 옷은... 오빠..?!!

잠이 덜 깬 희주를 무작정 끌고 나오는 남호.

#61. 회상 / 공방 앞 / 밤

희주, 눈을 부비고 나오는데 물레 간에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른다.

희주 오빠... 이게 무슨 냄새야?
남호 빨리 가자.
희주 오빠! 공방에 불 났나봐! 오빠!
남호 잘 들어! 지금 우린 병원에 있는 엄마한테 가는 거야! 알았어?!!

희주, 점점 올라오는 불길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공방으로 뛰어간다.
희주를 붙잡으려 달려가는 남호.

희주 아빠!! 아빠!!! 불이야!! 불이야!! 아빠!!
남호 희주야! 위험해!!

불길이 거세지며 희주를 덮치려는데 남호가 희주를 안고 막는다.
그 바람에 남호의 손에 불이 붙는다.
그 때, 갑자기 나타난 봉천이 남호의 손에 붙은 불을 자신의 옷으로 끄면서
남호와 희주를 끌어안는다.
봉천의 품을 뿌리치고는 달려 나가는 남호.

남호 (분노) 이젠 모두 다 아버지 때문이야!!
봉천 남호야~

멍하니 불타는 공방을 바라보는 봉천. 그런 봉천의 손을 꼭 잡는 어린 희주.

#62. 회상 / 남창역 앞 / 낮

엄마가 어린 남호와 희주의 손을 잡고 바쁘게 남창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희주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안타까운 얼굴이다.

표를 끊고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려는 엄마, 그 때 엄마의 손을 뿌리치는 희주.

희주 엄마! 나는 안 갈란다.

남호 희주야!

희주 오빠야! 나는 아빠랑 용기 만들어야 한다.

엄마 희주야, 엄마랑 가자. 엄마도 용기 만들게 해줄게.. 응?

희주 용기는 아빠가 최고다. (울떡) 엄마가 안 가면 안 되나?

엄마 희주야.... 엄마는....

남호 됐다! 우리 모두 아빠한테 할 만큼 했다! 지긋지긋한 용기 얘기할거면
너도 확 가버려!

희주 (울떡이다) 나는 용기 만들 거다! 용기가 종단 말이야!!

남호 내가 성공해서 저 용기공방 다 부셔 버릴 거야!!!

희주 (원망) 또 불내서 우리 다 죽여 버릴라고?!!

남호를 원망하듯 보다가 엉엉 울며 남창역을 달려 나가는 희주.

기차가 곧 출발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오고, 엄마가 희주를 잡으려 하지만 남호가 막아선다.

남호 엄마! 희주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요!

그러니까 어서 가요!

엄마 희주야....

단호한 남호의 얼굴. 결국 기차역 안으로 들어가는 엄마와 남호.

#63. 현재 / 희주 방 / 밤

앨범을 조용히 닫는 남호. 쓸쓸하게 밖을 내다본다.

밤하늘엔 달이 고요히 빛난다.

#64. 공방 / 밤

물레에 앉아 용기를 만들고 있는 봉천.

수레질이 멈추지 않는다.

남호 (불쑥) 우리 집 나갔을 때도 그렇게 용기만 보고 계셨어요?

봉천 (말없이 용기만 만든다)

남호 회주... 걱정도 안 되세요?
 봉천 용기 만드는 데나 집중해라.
 남호 아버지!!!
 봉천 (위엄 있는)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넌! 너 하나가 아니라, 대에 속해 있는 거야! 의무가 있단 말이야!
 네겐 자리가 있고, 그걸 위해 태어난 거란 걸 모르겠느냐?
 남호 제발, 날 봐요! 한 번 만이라도 제대로 절 보시라 구요!
 아버지 여전히 절 모르시잖아요!
 봉천
 남호 아버지가 말 하는 그 자리! 그건 회주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아버지 손재주, 그대로 빼다 박은 것도 회주라구요!
 봉천 그 재주 난 필요 없어! 나한테 쓸모없다!
 남호 (폭발하는) 쓸모없는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아버지가 보관해왔던 자신이 어릴 적 만들다 만 미완성 용기를 집어 던지는 남호.
 와장창 깨져 흩어진다.

남호 회주가 떠나고, 제가 남게 된 걸 후회하게 해 드리죠!

쾅! 문을 닫고 나가는 남호.

#65. 공방 - 물레 간 / 새벽

새벽의 푸른빛이 내려앉은 하늘.
 공방 안에서는 아직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상념을 다 잊으려는 듯 밤새 용기를 만들고 있는 봉천

#66. 봉천의 방 / 새벽

봉천의 방을 살금살금 들어오는 발.
 여기저기 서랍과 장롱 문을 열고 닫으며 무언가를 찾는 그림자. 남호다!
 방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용기에 눈이 가는 남호.
 용기 안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하다. 용기 안으로 손을 넣고 무언가를 찾는 남호.
 꺼내 올리면 두툼한 봉투 하나! 공방 땅문서.
 씩 웃으며 방 밖을 나오는 남호.

#67. 마을 앞 - 차 안 / 새벽

꾸벅꾸벅 졸고 있는 동진, 그 옆에 회주가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다.
 그 때 저 앞, 부르릉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린다.
 놀라서 앞을 주시하는 회주. 동진도 푸드득 잠에서 깨면 남호의 차가 공방을 나오고 있다.

깜짝 놀라는 동진, 시동을 걸려는데 동진을 말리는 희주.

희주 기다려. 어차피 갈 곳은 정해져 있어. 아직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

남호의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는 희주.

희주 오빠는 정복 착용해줘. 현장 검거니까.

괜히 긴장해서 침을 꿀꺽 삼키는 동진.

#68. 시내 사채업 사무실 / 아침

사무실을 급습하는 동진과 희주.

동진은 신분증까지 제시하며 ‘동작 그만’을 외친다.

아침부터 자장면을 먹던 석태는 멍하니 동진과 희주를 바라본다.

석태 또 뭐야?

동진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석태 (어이없어 말이 안 나온다) 허... 나...

희주 (정색) 남호 오빠 어딴어?

석태 안 그래도 잘 왔다.

희주 (홍분) 땅문서 벌써 해치운 거야?

석태 씨불, 그 문서 구경이나 함 해보자! 남호 씨발 형님이 전화도 안 받고!
이런 말 진짜 안하려고 했는데...

내 손에 잡히면 형님이고 뭐고 죽는다고 전해라... 알았냐?!!!

희주 뭐...라...구?

석태 확! 그냥 너네 다 씹어 먹어 버린다! 아침 먹게 꺼져라!

난감한 희주.

#69. 거리 / 아침

사채 사무실 앞,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남호의 차는 보이지 않는다.

절망한 듯 고개를 숙이는 희주.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동진.

그 때,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희주

희주 고속도로로 나가자! 얼마 못 갔을 거야.

동진 고속도로?

희주 얼른! 오빠.

#70. 고속도로 / 아침

아직은 한산한 고속도로. 빠르게 달리는 동진의 자동차.
희주, 주위를 살핀다. 동진은 희주의 눈치를 살피며

동진 확률이 너무 적다. 고속도로 위에서 어떻게 찾니?
희주 (확고) 찾을 수 있어. 찾을 때까지 안 돌아갈 거야.
동진 야! 나 출근해야한다!
희주 나 시집 오라며?
동진 그..래,,,
희주 남호 오빠 잡아주면 갈게! 시집.
동진 못 잡으면 안 올 건가? 참...
희주 응! 안 가! 시집.

동진, 한 숨을 푹 쉬는데, 그 때 희주의 눈에 남호의 차가 보인다!

희주 저기 있다! 저기!
동진 응?!!
희주 오빠! 빨리!

남호의 차를 쫓는 동진의 자동차.

#71. 울산 어느 요양원 / 낮

산길로 들어서는데 남호의 차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쫓는 동진의 차.
희진, 산 길 옆으로 난 [** 요양병원] 간판을 본다.

희진 여긴... 왜...
동진 이거.. 혹시... 신장 팔았다더니.. 돈 뜯으러 온 거 아니야?
희진 (긴장)

저 앞, 남호의 자동차가 멈춰서고 남호가 병원 안으로 들어간다.
고개를 푹 숙이는 희주. 동진의 자동차도 멈춰 선다.

동진 (눈치 보며) 어떻게... 들어갈래? 괜히 못 볼 꼴 보지 말고
 남호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희주 (말없이 차에서 내린다.)
동진 희주야?!!
희주 (단호) 오빠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기다려.

성큼성큼 요양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희주. 한 숨을 꼭 쉬는 동진.

#72. 요양 병원 안 / 낮

남호의 뒤를 살금살금 쫓는 희주.

다행히 남호는 승강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숨어서 지켜보는 희주.

남호, 승강기를 탄다. 4층에서 멈춰서는 엘리베이터.

희주, 계단으로 뛰기 시작한다. 헉헉 거리며 올라가는 희주.

4층 복도로 들어서자, 남호가 어느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겨우 발견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병실 앞으로 다가서는 희주.

#73. 병실 안 / 낮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는 희주.

희주 (단호) 오빠! 땅문서 들려줘! 아래 경찰도 왔어!

남호 (놀라는) 희주야...

희주 내 이름 부르지 마! 빨리 땅 문서나 내 봐!

그 때, 병약한 여자의 목소리가 가냘프게 들려온다.

여자 희...주...야....

희주, 바라보면 침대 위,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중년의 여자가 희주를 보며 웃고 있다.

떨리는 손을 희주에게 내미는 여자. 희주, 놀라서 여자를 바라본다.

희주 (놀라움) 엄....마.....??

눈물을 글썽이며 희주를 바라보는 엄마. 희주는 당황한 얼굴이 되어 남호를 바라본다.

남호 엄마 많이 아프시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어.

아버지 공방, 엄마도 반쯤은 권리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데.... 그 공방... 손 못 대겠더라. 도저히...

툭, 침대 위에 땅문서를 놓는 남호. 결국 눈물을 흘린다.

남호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무능력해서....정말 미안해요...

엄마, 남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젓는다.

땅문서를 꺼내보는 희주. 그런데 소유주가 김 봉천이 아닌 김 희주로 되어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는 희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팽 돈다.

희주 봉천 웅.... 언제....
엄마 희주야... 희주야...이리 와봐.

작은 소리로 희주를 부르는 엄마. 희주, 엄마를 보지만 선 뜻 다가설 수 없다.

남호 엄마 손 좀 잡아드려!
 너 그렇게 버려두고 매일 밤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
희주 (눈물 꼭 참으며) 엄마... 나 매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왜 열심히 그렇게 웅기를 만들었는지 알아? 내 웅기가 유명해져서 전
 국에 팔리면 언젠간 엄마가 내 웅기를 보고 자랑스러워하겠지.
 그리고 거기에 밥도 담아 먹고, 국도 해 먹고, 김치도 담아 먹겠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지금은.. 지금은 아니에요. 나... 지금은 아니야...
엄마 (글썽) 희주야....

결국 엄마의 손을 잡지 못하고, 병실을 뛰쳐나오는 희주.
요동치는 가슴을 꼭 누르며 복도를 달려 나간다.

#74. 공방 / 낮

헉헉 거리며 공방 문을 벌컥 열고 뛰어 들어오는 희주. 그러나 공방엔 봉천이 없다.

#75. 장독대 / 낮

정성스럽게 장독대의 웅기를 하나하나 담고 있는 봉천.
엄마의 간장과 된장이 들어있는 웅기를 어루만진다.

희주 그런다고 집 나간 엄마가 돌아와요?!
봉천

공방 땅 문서를 던지는 희주.

희주 나, 이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언제 땅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 아버지 전수자로 받아주세요! 아니면 내가 땅 확 팔아 버릴 거예요!
봉천 (나직하게) 왜 그리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희주 (울컥 눈물이 난다.)
봉천 나는 웅기를 선택해서, 마누라고 아들이고 모두 떠나게 만들었다.
 지 마누라가 뒤지든, 자식들이 끼니를 굶던 가마 불이 올라가면 그것만 봐

야 하는 게 웅기장이다. 그리 힘든 길을.... 왜 자꾸 가려고 하난 말이다.
 회주 (눈물 참으며) 나도 아버지처럼 웅기를 선택했으니까요...
 봉천
 회주 그리고 이젠 다 같이 살아요. 엄마랑, 오빠 다같이...
 봉천 (떨린다) 니... 엄마... 어디... 있니... 만나거야?

눈빛이 떨리는 봉천.

#76. 요양병원 / 저녁

거칠고 마른 엄마의 손을 거칠고 굳은 살 박힌 봉천의 손이 잡는다.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았던 봉천. 병약한 엄마를 보더니 스르륵 눈물을 흘린다.

봉천 왜 이렇게 말랐나....밥도 못 얻어먹고 다녔나...
 엄마 남호한테 아버지 찾아가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 죽으면... 아버지라도 있어
 야지 싶어서... 그런데 또 말썽 피웠나보네요...
 봉천 아니다. 그런 말 말아라.
 엄마 그래도 남호... 나 때문에 신장까지 떼어내고...(눈물) 못한 어미 땀에...
 미안해요.... 이렇게 나타나서...
 봉천 이렇게... 나타나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 여보....
 봉천 많이 기다렸다... 남호 엄마... 정말... 미안하다...

엄마의 손을 잡고 결국 울어버리는 봉천. 엄마가 봉천의 눈물을 닦아준다.

CUT TO

문 밖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남호와 회주.
 남호, 결국 눈물을 보인다.

남호 아버지...
 회주 (남호의 손을 잡아주며) 오빠 말 대로는 못할 거 같아...
 아버지 이기라는 말... 대신, 아버지만큼 잘 할 거야. 약속해.
 그러니까 이제 함께 살아.

회주의 머리를 쓰다듬는 남호.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77. 공장 / 낮

탁탁탁탁 웅기를 만들고 있는 손.
 보면 대형웅기 수레질을 하고 있는 봉천이다.

혼자, 용기를 만드는데 전념하는 봉천.
그의 손에서 단단하고 위엄 있는 대왕용기가 완성된다.

#78. 통가마 앞 / 낮

가마 앞에서 불을 보고 있는 봉천.
그 때 나무를 들고 들어오는 누군가. 나무를 내려놓으면 회주다.
회주, 아버지의 눈치를 보다가 쓱 나가려는데

봉천 이리와 봐라.

놀라는 회주. 봉천 옆에 와 선다.

봉천 지금부터 아침까지가 제일 중요할 때다. 1200도를 유지해줘야 한다.
 나무 더 넣어봐라.

회주 (의아) 네? 네...

봉천의 말대로 가마에 나무를 넣는 회주. 가마 앞에 나란히 선 부녀.

봉천 잘 보고 있어라.

회주 어디 가시게요?

봉천 이젠 니가 가마 봐라.

회주 (놀라움) 아버지....

놀라는 회주를 물끄러미 보다가 씩 웃으며 사라지는 봉천.

#79. 들길 / 낮

휠체어를 탄 엄마와 함께 산책하는 봉천. 조금은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봉천 바람 참 좋다...

엄마에게 들꽃을 꺾어주는 봉천. 가만히 웃는 엄마.

#80. 통가마 / 낮

가마 앞을 막았던 돌들을 해체하면 보이는 회주의 얼굴.
소성작업을 마친 용기들을 꺼내기 위해 가마 입구를 열고 있다.
그 때, 쓱 들어오는 동진의 얼굴.

동진 너무 한 거 아니야?
 희주 나 지금 바빠... 오빠.
 동진 나 오늘 B번이라고 했잖아. 찾아 달라는 남호 찾아줬더니, 오라는 시집은 안 오고! 매일 가마 옆에만 붙어있고... 하.. 진짜...
 희주 오빠...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빠가 좀 이해해줘.
 동진 (불쑥 희주를 잡더니) 더 이상은 안 돼!
 희주 어머! 오빠~

가마 입구에서 희주를 채가는 동진. 사라지는 두 사람.

희주 (E) 어머.. 오빠.. 누가 보면 어떡해.... 이러지 마....
 동진 (E) 가만 있어봐..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의 사랑스런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

#81. 통가마 앞 / 낮

위엄 있게 서 있는 대왕 옹기.
 그 아래 서 있는 봉천. 긴장감 있는 눈으로 대왕 옹기를 바라본다.
 희주와 남호도 긴장한 얼굴이다. 봉천, 희주에게 다가오더니 불쑥 망치를 쥐어주며

봉천 성공이다. 껌 필요 없겠다.

조용히 웃더니 가마 밖으로 나가는 봉천. 환호성을 지르는 희주.
 휠체어에 탄 엄마가 그런 희주를 자랑스럽게 바라본다.
 남호 역시 희주의 어깨를 토닥이고, 동진과 김 노인은 박수를 치고 난리 났다.
 드디어 완성된 대왕옹기가 가마 앞에서 갈색 빛을 내며 서 있다.

#82. 에필로그

공방 앞
 완성된 옹기들을 살피고 있는 희주. 손에 망치를 들고 있다.
 희주 뒤를 줄줄 따라다니며 인상을 쓰고 있는 남호.
 그 때 희주, 무언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옹기를 깨부순다.

남호 (말리며) 멀쩡한 거를 왜 깨부수나!
 희주 어디가 멀쩡해?! 저런 거 내다 팔면 욕먹는다!
 남호 니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도 다 주인이 있다!
 야생화니 화초니 키우는 사람들이 다 사간다!
 3천원에 팔아도 두부가 두 모다!

희주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절대 안 돼!
남호 하이튼.... 누구 딸 아니랄까봐!

복작복작 거리는 희주와 남호.

희주는 망치로 웅기를 깨려고 하고 남호는 그걸 막느라 난리다.

웅기로 제작된 독특한 ‘봉천家네 웅기 공방’ 간판이 화면에 가득 차며

엔딩 타이틀